

서울 非勤勞者家計의 貯蓄行態

朴 在 潤*

<目 次>	
I. 序 言	IV. 貯蓄率의 決定要因
II. 標本家口의 特性	V. 政策的 示唆
III. 貯蓄의 現狀	

I. 序 言

經濟發展의 觀點에서 보면 消費보다 貯蓄이 더 중요한 경제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이론은 소비의 연구에 主眼을 두어 왔고 저축은 소비의 裏面으로만 취급해 온 것 같다. 오늘날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內資動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例外없이 국내 저축증대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정의 하나로 되고 있어, 저축현상 그 자체에 대한 깊은 理解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本稿는 非勤勞者家計의 貯蓄行態에 영향을 미치는 諸要因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 가계의 저축율이 가계의 所得水準 및 純資產規模, 家口主의 特性, 家族의 構成, 生活方式 및 消費慣習, 貯蓄의 概念, 金融制度의 認知 등에 의하여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平均所得水準이 다르리라고 예상되는 서울의 4개 洞으로부터 120家口를 無作爲抽出하였다. 그중 조사가능한 것은 111家口였으며, 高所得地域으로 예상한 종로구 가회동에서 26가구, 高所得地域 혹은 中所得地域으로 예상한 관악구 상도동에서 30가구, 中所得地域으로 예상한 관악구 신림동에서 25가구, 그리고 低所得地域으로 예상한 영등포구 시흥동에서 30가구가 조사되었다.

本稿에서는 먼저 標本의 特性을 여러가지 觀點에서 관찰하고 貯蓄의 現狀을 여러가지 기준에서 파악한 후, 貯蓄率의 決定要因을 위의 가설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이러한 분석에서 얻은 貯蓄增大政策에 대한 示唆가 정리되어 있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II. 標本家口의 特性

1. 所得階層別 家口數

標本家口의 所得階層別 分布는 <表 II·1>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말하는 家計所得은 全家口員이 1년 동안(1976년 7월 1일~1977년 6월 30일) 획득한 모든 所得을 말하며 非勤勞者家計라 함은 全家口員數에서 연간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원의 主所得이 非勤勞所得인 것을 의미한다.

所得階層을 480千원(月 4萬圓) 이하로부터 12,001千원(月 101萬圓) 이상에 이르기까지 8개로 나누었을 때, 480千원 이하의 7家口와 6,001千원(月 51萬圓) 이상의 10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는 481千원 이상에서 6,000千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481~840千원(月 4~7萬圓), 841~1,200千원(月 7~10萬圓), 1,201~1,800千원(月 10~15萬圓), 1,801~3,000千원(月 15~25萬圓), 3,001~6,000千원(月 25~50萬圓)의 다섯개 階層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가회동에는 3,001千원 이상의 가구가 66.7%, 상도동과 신림동에서는 841~6,000千원의 가구가 각각 79.3%와 79.1%, 840千원 이하의 가구가 6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소득격차는 우리가 조사대상지역을 선정할 때에 예상한 대로 가회동은 고소득지역, 상도동은 고소득 혹은 중소득지역, 신림동은 중소득 혹은 저소득지역, 시흥동은 저소득지역임을 나타내고 있다(<表 II·1> 參照).

2. 資産階層別 家口數

<表 II·2>는 표본가구의 實物資産階層別 家口數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實物資産이라 함은 1977년 6월 30일 현재 조사대상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土地, 住宅, 其他의 建物, 貴金屬, 消費者耐久財 등 모든 實物形態의 動産과 不動産을 말한다.

조사된 가계의 37%가 10,000千원 이상의 實物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6%가 5,001~10,000千원의 實物資産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00千원 이하의 實物資産을 가진 家計는 14%에 지나지 않고 100千원 이하의 家計는 全無하다.

지역별로는 고소득지역인 가회동에서는 87.5%의 가계가 10,000千원 이상의 實物資産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도동과 신림동에서는 각각 65.4%와 79.2%의 家計가 5,001千원 이상의 實物資産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시흥동에서는 65.4%의 가계가 2,000千원 이하의 實物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表 II·2> 參照).

다음으로 <表 II·3>은 표본가구의 金融資産階層別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자산의 보유에 관하여는 조사된 111가구중 74家口만이 應答하였고 37가구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37가구중 특히 시흥동에서는 17가구가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중 많은 가구가 금융자산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74가구중 30가구가 1,000千원 이하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6가구가 1,001~10,000千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10,001千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가구는 9개에 불과하다. 이를 위의 實物資産保有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家計의 金融資産保有性向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역시 가회동에서는 61.9%의 가구가 5,001千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상도동과 신림동에서는 각각 75%의 가구가 101~2,000千원의 금융자산을 그리고 시흥동에서는 69.2%의 가구가 500千원 이하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表 II·3> 參照).

이를 實物資産의 보유와 비교하여 보면 가회동의 경우 實物資産의 보유는 高資産階層에 集中되어 있는데 반하여 금융자산의 보유는 各資産階層에 보다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상도동과 신림동의 경우에는 實物資産의 보유가 高資産階層에 보다 偏重되고 있는데 反하여 금융자산의 보유는 오히려 低資産階層에 偏重되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시흥동에서는 實物資産과 금융자산의 보유가 모두 低資産階層에 偏重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高資産階層의 家計일수록 금융자산보다 實物資産의 選好가 더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實物資産은 금융자산보다 단위가격이 높기 때문에 高資産階層의 가계가 보다 용이하게 實物資産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負債金額階層別 家口數

111個 調査對象家口중 42개 가구만이 그들의 負債金額을 밝혔고 60% 이상의 가구가 부채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물론 未詳으로 나타난 69개 가구중에는 부채가 全無한 가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부채에 관하여 응답한 42개 가구중 절반인 21개 가구가 101~1,000千원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100千원 이하의 부채를 가진 가구가 7가구, 그리고 1,001千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가구가 14가구이다.

地域別로는 高資産·高所得地域인 가회동에서는 3가구가 부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상도동과 신림동은 각각 8가구와 17가구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부채금액계층별로 두 지역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흥동에서는 부채를 가진 14가구가 모두 1,000千원 이하의 부채금액계층에 속하고 있다(<表 II·4> 參照).

4. 家族數階層別 家口數

조사된 가구의 家族數를 보면 2인 이하의 가족수를 가진 가구는 8가구(12.5%)에 불과하고 3~5인의 가구가 64가구(58.2%) 그리고 6~10인의 가구가 38가구(34.6%)이다.

이러한 가족수계층별 분포는 지역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가회동과 상도동이 다소 家族的인 경향이 있고 신림동은 보다 3~5인 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흥동은 보다 분산되어 있는 듯하다(〈表 II·5〉 參照).

5. 家口主年齡別 家口數

家口主의 年齡에 따른 標本家口의 分布를 보면 40代가 39.6%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30代, 50代, 그리고 20代 이하 및 60代 이상의 순서로 되어 있다.

地域別로 보면, 高所得地域인 가회동에는 가구주의 연령이 40代 이상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中所得地域인 상도동과 신림동은 지역의 평균적인 연령구조에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지역인 시흥동은 30代 이하의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과 家計所得間의 밀접한 相關關係를 暗示하는 것으로서 어떤 개인의 平生에 있어선 연령이 젊을 때에는 저소득일 가능성이 크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위의 사실은 가구주의 연령차이가 지역별 소득격차의 한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시흥동의 젊은 가구주가 연령이 높아졌을 때 가회동과 같은 소득수준이 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表 II·6〉 參照).

6. 家口主學歷別 家口數

家口主의 學歷을 기준으로 표본가구의 분포를 보면 大學卒業과 高校卒業이 각각 35家口(31.8%)와 34家口(30.9%)로서 가장 높고 中學校卒業이 26가구(23.6%), 國民學校卒業이 14가구(12.7%)이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하여 가회동은 표본가구의 70%가 大學卒業인데 反하여 상도동과 신림동은 각각 40.0%가 高等學校卒業으로서 가장 많고 시흥동은 41.4%가 中學校卒業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주의 學歷差異가 지역별 소득격차의 한 중요한 原因이 됨을 알 수 있다(〈表 II·7〉 參照).

7. 家口主職業別 家口數

家口主의 職業을 基準으로 標本家口의 分布를 보면 非勤勞者家計를 對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販賣從事者가 57가구(52.3%)로서 가장 많다. 다음은 서비스 종사자,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행정 및 관련직 종사자, 그리고 생산 및 관련직,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

노무자가 각각 14가구(12.8%), 12가구(11.0%), 11가구(10.1%) 그리고 11가구(10.1%)이다. 농, 축, 임, 수산 및 수렵업 종사자는 3가구뿐이고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가 1가주이다.

지역별로는 가회동에서 행정 및 관련직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이 例外的이며,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서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表 II·8〉 參照).

III. 貯蓄의 現狀

1. 貯蓄率

111개 調査對象家口中 貯蓄率의 計算이 가능한 家計는 88家口뿐이었다. 이들 88家口의 平均貯蓄率은 25.7%이며, 지역별로는 가회동 23.6%, 상도동 27.9%, 신림동 28.3%, 그리고 시흥동이 21.8%이다.

만약 貯蓄率이 計算되지 않은 23家口의 저축율을 0으로 看做한다면, 111개 조사대상가구의 평균저축율은 20.4%이며 지역별로는 가회동 20.9%, 상도동 26.0%, 신림동 23.8%, 그리고 시흥동이 11.6%로 된다.

따라서, 저축율이 未詳인 가계의 저축율은 모두 영으로 보는 것도 무리이지만 저축율이 영인 家計의 상당수가 未詳으로 나타났다고 짐작되므로, 실제의 평균저축율은 20~25%일 것으로 추단된다.

88개 가구의 저축율계층별 분포를 보면, 26가구(29.5%)가 0.1~10.0%의 저축율을 실현하고 있고 10.1% 이상의 저축율에 있어서는 40.0%까지는 매 10%포인트 계층마다 비슷한 가구수가 분포되어 있으며 40.1% 이상의 계층에서는 가구수가 급격히 적어지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가회동의 경우 20.1~30.0%의 저축율계층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의 가구가 분포되어 있는 것 외에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들어나지 않는다.

다만 시흥동의 경우 30개 조사가구중 14가구의 저축율이 未詳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저축을 않는 가구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未詳을 모두 저축율이 영인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시흥동의 저축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될 것이다(〈表 III·1〉 參照).

2. 貯蓄하지 않는 理由

위의 資料에 의하면 저축율이 영인 가구는 全無하고 미상인 가구가 23개이었다. 그러나 저축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20개 가구가 應答을 하였으며 그중에는 저축하지 않는 이

유를 2개 이상 지적한 가수도 있었다. 그리고 저축을 다소 하고 있는 가계도 역시 저축을 않는 이유를 하나 혹은 둘씩 지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嚴密性을 결하지만 저축율이 미상인 가계의 대부분이 저축하지 않는다고 상정하기로 하고, 또 다소의 저축이 있는 가계가 지적한 저축않는 이유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表 III·2>를 얻었다.

이에 의하면 저축하지 않는 이유는 壓倒的으로 「저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지역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이지만, 低所得地域으로 올수록 이 이유의 비중이 다소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貨幣價値의 低落을 우려하여 저축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특히 「저축보다는 매일의 생활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즉 未來의 消費보다 現在의 消費를 높이 評價하기 때문에 저축하지 않는 경우는 全無하다.

저축을 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所得水準이며, 일정한 소득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저축을 하지 않는 것이 가계의 저축행태의 한 특징인 것을 알 수 있다 (<表 III·2> 參照).

3. 貯蓄의 目的

우리는 저축의 목적을 알기 위하여 <表 III·3>에서의 같은 9개의 목적을 例示하고 그중 3개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실제로 저축율을 밝히지 않은 가계중에서도 상당한 수의 가계가 이 질문에 답하였기 때문에 應答의 頻度가 엄밀하게는 264(88가주×3) 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表 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3이나 되었다.

이에 의하면 저축의 3大目的이 매우 뚜렷하게 들어난다. 즉 그것은 ① 「疾病이나 갑자기 필요한 자금을 대비하기 위하여(즉 예비적 목적) ②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③ 「앞으로의 營業資金을 마련하기 위하여」 등이다. 그 밖에 예시한 6가지의 목적은 그 비중이 매우 작은 것이 주목된다.

지역별로는 가회동은 저축의 주요목적이 ① 豫備的 目的 ② 教育目的 ③ 老後의 生活安定 ④ 營業資金準備의 順이고, 상도동과 신림동은 ① 豫備的 目的 ② 教育目的 ③ 營業資金準備이며, 시흥동은 ① 教育目的 ② 營業資金準備 ③ 豫備的 目的 등이 저축의 주요목적으로 되고 있다. 즉 고소득지역에서는 老後의 生活安定이 他地域에 비하여 상당히 중요한 저축목적적이 되는 反面에, 저소득지역에서는 豫備的 目的의 重要性이 他地域보다 낮다는 것이 흥미롭다(<表 III·3> 參照).

4. 貯蓄의 方式

貯蓄의 時期와 金額의 規則性을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는 <表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은 4가지 방식의 저축중 하나를 고르게 하였다. 응답한 74가구중 「여유가 있을 때 수시로 저축하는」 가계가 28가구(37.8%)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는」 가계가 25가구(33.8%), 그리고 「매월 저축하지만 금액이 일정치 않은」 가계가 19가구(25.7%)이다. 매월 저축하는 가계는 60% 未滿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表 III·4> 參照).

5. 더 貯蓄하지 않는 理由

우리는 조사대상가구가 조사대상기간(1976. 7~1977. 6) 중에 더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表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시된 다섯 가지 이유중에서 응답가구의 71.4%가 소득수준의 저위로 더 이상 소비지출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그 밖에 더 이상의 저축이 불필요하다든가, 화폐가치의 하락이 우려된다든가, 현재의 소비를 더 중요시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이유는 매우 미미한 중요성 밖에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별로도 별로 차이가 없다(<表 III·5> 參照).

6. 消費 및 類似支出에 대한 認識點

우리는 家計單位에서 가지고 있는 貯蓄의 概念을 檢討해 보기 위하여 消費, 그와 類似한 支出, 其他의 項目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에 대한 支出을 소비로 보는지 저축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提示된 10개의 項目中 社會的 次元에서 저축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住宅購入·住宅修理 그리고 教育費支出 등 세 項目이다. 주택구입은 조사대상가구의 92.8%가 저축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주택수리에 관하여는 59.5%만이 저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教育費支出은 論者에 따라 社會的 次元에서도 저축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72.1%의 家計가 貯蓄으로 인식하고 있다.

社會的 次元에서는 저축으로 인정될 수 없는 支出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比重의 家計가 저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土地購入(95.6%), 貴金屬購入(80.2%) 그리고 負債償還(71.2%) 등이다. 특히 토지구입과 귀금속구입이 중요한 저축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國民經濟의 觀點에서 볼 때 중대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表 III·6> 參照).

7. 貯蓄心の 教育

자녀에 대하여 저축심을 길러주는지의 與否는 장차 국민경제의 저축율상승의 가능성에 대하여 주요한 示唆를 줄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는 이를 조사하였다. 응답한 家計의 84.3%가 저축심을 길러주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지역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表 III·7> 參照).

IV. 貯蓄率의 決定要因

1. 所得 및 資産

(1) 所得水準과 貯蓄率

貯蓄率을 決定하는 가장 중요한 要因이 所得이라는 것은 저축에 관한 이론의 가장 오래된 假說이다. 본 연구에서도 저축을 決定의 1次的 要因으로 所得水準을 想定하였다. <表 IV·1>은 家計所得을 8개 계층으로 나누어 소득계층별 저축율을 비교하고 있다.

소득계층별 저축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소득계층을 1,200千원(月 10萬圓) 이하, 1,201~6,000千원(月 10~50萬圓) 그리고 6,000千원(月 50萬圓) 이상의 3계층으로 비교하면 각각의 저축율은 24.1%, 25.0%, 그리고 31.9%로서 소득수준과 저축율간의 뚜렷한 陽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8개의 소득계층으로 나누었을 때 흥미있는 것은 가계소득이 840千원(月 7萬圓) 이하인 계층보다 1,200千원(月 10萬圓) 이하인 계층의 저축율이, 가계소득이 1,201~1,800千원(月 15萬圓)인 계층보다 1,801~3,000千원(月 25萬圓)인 계층과 3,001~6,000千원(月 50萬圓)인 가계층의 저축율이, 그리고 가계소득이 6,001~12,000千원(月 100萬圓)인 계층의 저축율을 보다 12,000千원 이상인 계층의 저축율이 각각 더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계소득의 증대에 따른 저축율의 상승에는 斷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보다 풍부한 자료에 의하여 더욱 면밀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현상이다.

위와 같은 경향은 지역별로 보았을 때도 대체로 마찬가지이다. 소득계층을 위에서와 같이 크게 세 계층으로 나누었을 때 소득수준과 저축율간의 陽의 상관관계는 지역별로 예외 없이 成立하였으며 소득계층을 보다 세분했을 때 소득의 증대에 따른 저축율의 상승에 나타나는 斷層現象도 시흥동을 제외한 다른 세 지역에서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表 IV·1> 參照).

이상에서 소득수준은 저축율의 중요한 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저축율의 다른 결정요인을 검토함에 있어서 소득수준의 영향을 가능한 한 제거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을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3,000千원 이상의 3계층으로 대별한 후 각 소득계층에 대하여 저축율의 다른 결정요인과 저축율간의 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2) 資産 및 負債規模와 貯蓄率

家計의 資産 및 負債規模와 貯蓄率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假說은 家計의 純資産規

模가 클수록 저축율이 낮다는 것이다. 순자산의 규모가 큰 가계는 그것이 작은 가계보다 저축의 필요성이 작기 때문에 소득중 보다 큰 부분을 소비하고 보다 작은 부분을 저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의 저축율이 가계의 총자산의 감소함수이고 부채의 증가함수일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總資産과 貯蓄率의 관계는 <表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계층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총자산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저축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규칙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表 IV·2> 參照).

總負債와 貯蓄率간에는 역시 <表 IV·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先驗적으로 기대되는 관계가 그대로 성립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총부채의 규모가 클수록 저축율이 높은데 반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총부채의 규모가 클수록 저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IV·3> 參照).

위와 같은 관계는 純資産規模와 貯蓄率 간의 관계로 검토하여 보면 보다 有意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3) 이웃 所得과의 比較와 貯蓄率

消費行爲에 관한 相對所得假說에 의하면 한 家計의 消費水準은 그 家計가 속하는 社會의 平均的인 소비수준을 중요하게 참조하여 결정되므로 평균소득수준보다 높은 家計의 저축율은 평균소득수준보다 낮은 가계의 저축율보다 높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웃 소득과 비교하여 자기의 소득이 보다 높다고 생각할수록 저축율이 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스스로 판단하는 상대소득이 실제의 상대소득을 대체로 정확히 반영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表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는 연간소득 3,0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만 제대로 성립하고 있다.

그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상대소득과 저축율간의 관계가 불규칙적이다(<表 IV·4> 參照).

(4) 自家所有與否와 貯蓄率

住宅 마련이 중요한 저축목적의 하나라면 自家所有與否가 家計의 저축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연구는 기대하였다. 즉 自家를 소유한 家計의 저축율보다 그렇지 못한 家計의 저축율이 더 높으리라는 것이 본 연구의 假說이다.

이 가설은 <表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결과가 대체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소득수준 3,000千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자가소유가계의 저축율보다 그 밖의 가

계의 저축율이 훨씬 높다. 다만 소득수준 3,0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반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소득 계층에서는 無住宅家計가 5가구(조사대상가계의 14.7%)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表 IV·5〉參照).

2. 家口主의 特性

(1) 家口主의 年齡과 貯蓄率

家計의 消費行爲에 관한 平生所得假說에 의하면, 한 家計의 所得을 가구주가 청년기로부터 장년기에 이를 때까지 급속히 상승하다가 장년기 이후 노년기에 이르기까지는 하락하는 데에 비하여 소비지출은 평생을 통하여 대체로 일정한 속도로 상승한다. 따라서 이 가설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청년기로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는 가계의 저축율이 상승하다가 장년기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게 된다.

위와 같은 가설을 橫斷面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表 IV·6〉이다. 소득수준 3,001千원 이상의 계층의 경우는 다소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보아 가구주연령이 40세 이하인 가계 보다 41~60세인 가계의 저축율이 더 높고 가구주 연령이 61세 이상인 가계의 저축율은 훨씬 낮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자료에 의할 때 위의 平生所得假說은 대체로 成立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表 IV·6〉參照).

(2) 家口主의 學歷과 貯蓄率

本研究은 家口主의 學歷이 높을수록 저축율이 높을 것을 기대하였다. 그것은 학력이 높은 가구주는 그의 經濟的 視野(economic horizon)가 보다 길기 때문에 소득의 보다 많은 부분을 장래를 위한 저축에 충당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위와 같은 가설은 〈表 IV·7〉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자료에 의하여 대체로 支持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소득수준 3,001千원 이상의 계층에 있어서는 最下學歷(無學, 國卒 및 國卒 이하)의 저축율이 가장 높고 中·高卒과 大卒이 보다 낮은 수준에서 비슷한 저축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하 학력의 가계가 단 1가구이므로 다소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 물론 高所得階層에서는 학력에 따른 저축율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 흥미롭다(〈表 IV·7〉參照).

(3) 家口主의 職業과 貯蓄率

본 연구는 가구주의 직업이 또한 저축율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였다. 즉 직업에 따라 所得發生의 규칙성이 다르든가, 家計計定과 事業計定の 分離가 잘 되지 않는다면, 同僚從事者들의 貯蓄慣行이 직업간에 다르다면 하는 등등의 이유로 가구주의 직업간에 가계의 저축율이 다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조사결과는 연간소득 1,201千원 이상의 계층에 있어서는 직업간의 저축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간소득 1,200千원 이하에 있어서는 직업에 따라 저축율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비스직의 저축율이 40.4%로서 가장 높고, 판매직 27.9%, 전문, 기술 및 관련직 10.9%, 그리고 생산직, 운전자, 단순노무자 10.7%의 순이다(〈表 IV·8〉 參照).

3. 家族의 構成

(1) 家族數와 貯蓄率

본 연구는 家計를 構成하는 家族의 人員數가 많을수록 貯蓄率이 낮을 것을 기대하였다. 그것은 가족수가 많을수록 소비지출의 필요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조사결과는 위의 가설과는 相反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表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소득 3,0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 가족수 2인인 1가구의 저축율이 47.5%로서 예외적으로 높은 것을 제외하면,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서 가족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저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므로 보다 본격적인 조사에 의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表 IV·9〉 參照).

(2) 有所得家族數의 比率과 貯蓄率

본 연구는 전체가구원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比率에 따라 가계의 저축율에 차이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 즉 소득이 있는 가구원들이 소득의 처분에 있어서 소비를 우선한다면 有所得家口員의 比率이 높을수록 저축율이 낮을 것이며, 반대로 저축이 우선한다면 有所得家口員의 비율이 높을수록 저축율이 높을 것이다.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연간소득 3,0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有所得家族의 비율이 높을수록 저축율이 높으며, 연간소득 3,000千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有所得家族의 비율이 높을수록 저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높은 소득계층에서 가구원이 저축에 보다 관심이 많고 낮은 소득계층에서는 가구원들이 소비지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表 IV·10〉 參照).

(3) 在學家族의 比率과 貯蓄率

全體家口員중 在學中인 家口員의 比率이 높을수록 저축율이 높을 것이나, 혹은 낮을 것이냐는 教育費支出을 貯蓄으로 計算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비지출을 저축에서 제외하고 저축율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表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소득계층에 있어서 모두 재학가족의 비율

이 20.0% 이하로부터 20.1~50.0%로 높아지면 저축율이 더 높아지는 반면에 이 비율이 50.1%로 더욱 높아지면 저축율은 다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학가족수의 비율이 20.0% 이하의 경우의 저축율보다 이 비율이 20.1~50.0%인 경우의 저축율이 더 높은 것은 재학가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만큼 저축에의 관심과 노력이 커지기 때문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비율이 50.1% 이상으로 되면 교육비 지출의 부담이 현저히 크게 되므로 저축율은 낮아지는 것 같다(〈表 IV·11〉參照).

4. 生活方式 및 消費慣習

(1) 家計計劃과 貯蓄率

본 연구는 한 가계의 저축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家計의 生活方式 및 消費慣習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하였다. 저축율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생활방식이나 소비관습의 지표는 여러가지이겠으나 먼저 家計運營에 관한 長期計劃을 세우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長期計劃이라 함은 每月의 豫算外에 年間家計計劃이라든가 그 이상의 기간에 걸친 計劃을 말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88家口中 49가구(55.7%)만이 장기가계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장기가계계획을 세우는 가계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장기계획을 세우는 가계의 저축율과 그렇지 않은 가계의 저축율을 비교하면, 연간소득 3,0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높은 저축율을 보이고 있으나, 연간소득 3,000千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장기계획을 세우는 가계의 저축율이 그렇지 않은 가계의 저축율을 뚜렷이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계획의 기간과 저축율간에는 어떤 규칙적인 관계를 찾아 보기 힘들다(〈表 IV·12〉參照).

다음으로 본 연구는 每月의 家計豫算을 작성하느냐 않느냐가 가계의 저축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가계예산을 작성하는 가계의 저축율이 그렇지 않은 家計의 貯蓄率보다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가설은 〈表 I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조사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며 오히려 家計豫算을 作成하지 않는 家計가 더 높은 저축율을 시현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表 IV·13〉參照).

따라서 한 가계의 저축율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매월의 가계예산을 작성하느냐의 여부보다 적어도 1년 이상에 걸친 長期家計計劃을 작성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所得處分方式과 貯蓄率

한 家計가 所得의 處分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축에의 配分을 우선하느냐, 혹은 소비지출을 우선하고 남는 것을 저축하도록 결정하느냐에 따라 저축율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대상가계에 대하여 總所得의 處分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것을 먼저 결정하는가를 묻고 ①「얼마를 소비지출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다」와 ②「얼마를 저축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다」중 하나를 고르게 하였다.

조사결과는 <表 IV·14>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年間所得 3,000千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저축금액을 먼저 결정하는 가계의 저축율이 소비지출금액을 먼저 결정하는 가계의 저축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간소득 3,001千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두가지 경우의 저축율에 사실상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연간소득 1,201~3,000千원의 계층에서는 조사대상가계의 35.4%가 저축을 먼저 결정하는 데에 비하여 연간소득 1,200千원 이하의 계층과 3,0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각각 조사대상가계의 21.7%와 20.5%만이 저축을 먼저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간소득 1,200千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가 필요한 소비지출에 소득을 우선적으로 處分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연간소득 3,0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 저축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가계의 비율이 이같이 낮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축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가계의 비율이 26.1%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저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表 IV·14> 參照).

(3) 貯蓄目標額과 貯蓄率

어떤 家計가 저축목표액을 설정하고 가계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저축율을 示顯하리라고 기대된다.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88가구중 42가구(47.7%)가 저축목표액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축목표액이 있는 가계와 없는 가계의 저축율을 비교해 보면, 연간소득 3,000千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전자의 저축율이 후자의 그것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연간소득 3,0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양자간에 저축율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表 IV·15> 參照).

(4) 貯蓄方式과 貯蓄率

저축하는 方式, 즉 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는가, ② 매월 저축을 하되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는가, 혹은 ③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여유 있을 때 저축하

는가 하는 것이 가계의 저축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의 방식이 ②보다 더 높은 저축율을, 그리고 ②의 방식이 ③보다 더 높은 저축율을 가져올 것으로 본 연구는 기대하였다.

3가지 소득계층에 있어서 모두 ③의 방식으로 저축하는 가계의 저축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본 연구의 기대와 같다. 그러나 ①과 ②의 방식을 비교하면, 연간소득 1,200千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①의 방식에 의존하는 가계의 저축율이 더 높지만, 연간소득 1,2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②의 방식에 의하는 가계의 저축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低所得階層에서는 定例的인 소득外에 不定期的이거나 예외적인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것이 보다 높은 율의 저축을 가능케 하지만, 中・高所得階層에서는 부정기적이거나 例外的인 소득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의 소득에 따라 저축하는 것이 오히려 높은 율의 저축을 가능케 하기 때문일 것 같다(〈表 IV·16〉參照).

5. 貯蓄의 概念 및 目的

(1) 貯蓄의 誤認과 貯蓄率

家計單位에서의 저축의 개념과 사회적 관점에서의 저축의 概念을 比較해 보기 위하여 10개의 支出項目을 提示하여 이를 各各 消費라고 보는가 혹은 저축이라고 보는가를 검토한 결과를 우리는 前章에서 提示하였다.

이들 10개의 項目中 社會的 觀點에서나 家計單位의 觀點에서라도 저축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항목은 被服購入, 自動車購入, 텔레비, 냉장고, 피아노 등 耐久財購入 등이며 教育費支出도 論難의 餘地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각 가계의 저축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비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이들 4個 支出項目中 많은 수의 항목을 저축으로 인식하는 가계일수록 저축율은 낮게 될 것이다.

〈表 IV·17〉은 위의 4가지 항목중 소비라고 보는 항목의 수에 따른 저축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저축으로 오인하는 소비지출항목의 수가 많을수록 저축율이 낮아지고 있다. 가계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는 저축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소비지출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연간소득 3,001千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중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소비를 저축으로 오인하는 가구수가 많다는 사실이다.

(2) 貯蓄의 聯想觀念과 貯蓄率

가계들이 저축에 대하여 어떠한 聯想觀念을 가지느냐에 따라 저축율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것이 기대된다. 즉 저축을 즐겁고 희망적인 것으로 받아 들인다면 같은 조건하에서 저축율은 더 높을 것이며, 반면에 저축을 고통스러우나 부득이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저축율은 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조사결과를 <表 I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축과 관련하여 ① 희망, 안전, 즐거움 등을 연상하는 가계들의 저축율이 가장 높고, ② 절약, 고통, 손실 등을 연상하는 가계들의 저축율은 보다 낮으며, ③ 여유를 연상하는 가계들의 저축율이 가장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계들에게 저축을 희망적이며 즐거운 것으로 그리고 미래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면 보다 높은 저축율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表 IV·18> 參照).

(3) 貯蓄의 目的과 貯蓄率

저축의 目的과 動機는 대단히 복잡적이며 또한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저축의 목적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구체적인 대답을 정확히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저축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가 저축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는 9가지의 저축목적을 例示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고르고 그것들을 중요한 것부터 번호를 매기게 하였다. 저축의 1次的 目的이 예비적 동기인 경우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동기인 경우에 저축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었다.

<表 IV·19>는 각각의 항목을 저축의 1次的 目的이라고 지적한 가계의 수와 이들 가계의 평균저축율을 나타내고 있다. 어느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② 「교육비 마련」을 저축의 일차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① 「질병이나 갑자기 필요한 자급에 대비하기 위하여(예비적 동기)」와 ④ 「앞으로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적극적 동기)」가 저축의 일차적 목적으로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3가지 1次的 目的에 따른 저축율의 차이를 보면, 연간소득 1,200千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①과 ②의 저축율이 ④의 저축율보다 더 높지만, 연간소득 1,2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④의 저축율이 ①이나 ②의 저축율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表 IV·19> 參照).

6. 金融制度의 認識

金融制度나 金融政策이 貯蓄率을 높일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아직도 이론적으로 統一된 見解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社會的 觀點에서 보면 저축은 금융저축의 형태로 이루어

어저야단 경제발전에 유익하다. 따라서 금융저축의 증대를 위한 각종의 금융제도를 저축의 주체들이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들이 저축증대를 위한 각종의 금융제도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아울러 이러한 금융제도의 인식이 가계의 저축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預金勸誘와 貯蓄率

전체적으로 보던 조사대상가구의 77.2%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고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연간소득 1,200千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69.5%의 가계가, 연간소득 1,201~3,000千원의 계층에서는 70.9%가, 그리고 3,0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88.2%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대체로 보아 이러한 예금권유는 저축율의 提高에 一助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간소득 1,2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예금권유를 받은 가계들의 평균저축율이 그렇지 않은 가계들의 그것보다 뚜렷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연간소득 1,200千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예금권유를 받은 적이 없는 가계들의 저축율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예금권유가 저축율 자체의 제고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表 IV·20〉 參照).

(2) 銀行과의 距離와 貯蓄率

조사대상 88가구중 62가구(70.4%)가 은행과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고 82가구(93.2%)가 도보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은행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계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흥미있는 현상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은행과의 거리가 가계의 저축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같다는 사실이다. 즉 연간소득 1,200千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은행과의 거리가 멀수록 저축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데, 연간소득 1,2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은행과의 거리와 저축율간에 어떤 규칙적인 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高所得層에서는 交通手段의 이용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은행과의 거리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고소득층일수록 은행예금이 저축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덜 지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表 IV·21〉 參照).

(3) 銀行預金金利의 評價와 貯蓄率

조사대상 88가구중 54가구(61.3%)는 은행예금금리가 너무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적

정하다고 평가하는 가구는 18가구(20.4%)이고 너무 높다고 보는 가구는 단 1가구 뿐이다. 그러나 12가구(13.6%)가 은행예금금리를 모른다고 답하고 있다.

은행예금금리와 저축율간의 관계는 위에서 본 은행과의 거리와 저축율간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즉 연간소득 1,200千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은행예금금리를 적정하다고 보는 가계들의 평균저축율이 너무 낮다고 보는 가계들의 평균저축율보다 다소 높으며 따라서 이 계층에서는 은행예금이 저축의 비교적 중요한 수단이 되고 또한 금리가 저축율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연간소득 1,2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은행금리가 너무 낮다고 보는 가계들의 저축율이 적당하다고 보는 가계들의 저축율을 뚜렷이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금리가 이들의 저축율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같으며 이는 은행예금이 이들의 주요한 저축수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表 IV·22〉 參照).

(4) 私債金利와 貯蓄率

私債市場에서의 貸付는 銀行預金과 중요한 代替關係에 있으므로 私債金利의 認知與否와 貯蓄率間의 관계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調査對象 88家口中 65家口(73.8%)가 私債金利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모른다고 답한 가구가 22가구이나 이들 중에는 정확한 금리수준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연간소득 1,200千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사채금리를 모른다고 답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들이 저축을 안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공공용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채시장을 덜 이용하고 있다는 지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계층에서는 사채금리를 모르는 가계의 저축율이 아는 가계의 그것보다 높다는 사실이 또한 이 계층의 가계에 대하여는 사채시장이 중요한 저축수단이 아닌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연간소득 1,2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사채금리를 아는 가계의 저축율이 그것을 모르는 가계의 저축율보다 뚜렷이 높은 것은 이들 소득계층에서는 私債市場이 그만큼 중요한 저축수단이 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같다(〈表 IV·23〉 參照).

(5) 預金利子所得에 대한 稅制上的 惠澤과 貯蓄率

은행예금의 利子所得에 대하여 所得稅가 免除되는 惠澤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한 88가구중 40가구(45.4%)만이 이러한 免稅惠澤을 알고 있으며, 이 비율은 低所得層일수록 현저히 낮다. 銀行預金增大를 위한 弘報를 強化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저소득층에서는 위의 免稅惠澤을 아는 가계들의 저축율이 뚜렷이 높은 데에 反하여 高所

得層에서는 이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간에 저축율의 차이가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역시 고소득층에서는 은행예금이 중요한 저축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表 IV·24〉參照).

(6) 政府의 物價安定政策과 貯蓄率

저축, 특히 금융저축은 저축의 주체들이 장래의 물가를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물가안정을 實現하리라고 믿는 가계일수록 저축율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대상 88개 가구중 47가구(53.4%)만이 「앞으로 정부가 다른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주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가구는 8가구뿐이지만, 「모르겠다」고 답한 가계가 33가구(37.5%)나 되었다. 이는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신뢰도가 그만큼 낮은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을 신뢰하지 못할 때 많은 가계들이 적극적으로 저축을 증대시키리라고 기대되지 않는다.

특히 高所得層에서는 물가안정정책을 신뢰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간에 저축율의 차이가 뚜렷이 들어난다(〈表 IV·25〉參照).

V. 政策的 示唆

本研究는 國內貯蓄의 增大를 위한 政策的 示唆를 얻기 위하여 國內貯蓄의 中樞가 되어야 할 家計貯蓄의 現狀과 家計貯蓄率의 決定要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얻은 바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調査對象家計中 저축율의 계산이 가능한 가계들의 평균저축율은 2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축율의 계산이 불가능한 23개 가구중 상당수가 零의 저축율을 가진 가계일 것이므로 위의 25.7%는 다소 過大評價된 것일 것이다.

저축율 전혀 하지 않는 이유와 더 이상의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를 검토한 결과, 「여유가 없다」는 것이 압도적이었고 「貨幣價値의 低落」을 우려한다든가 「未來의 消費보다 현재의 소비를 더 선호」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가계의 비율은 中·高所得地域에서도 低所得地域에서나 못지 않게 높은 것이 주목된다. 가계가 무엇을 必要한 消費로 보느냐는 것은 認識의 문제일 것이므로 貯蓄意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2) 저축율의 결정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所得水準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소득계층을 연간 1,200千원 이하, 1,201~6,000千원, 그리고 6,001千원 이상의 3계층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저축율은 뚜렷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을 8개 계층으로 보다 세분하였을 때에는 소득계층의 상승에 따른 저축율의 상승에 일종의 斷層現象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연간소득 480千원 이하의 계층은 저축율이 34.6%, 481~840千원은 26.2%, 841~1,200千원은 22.1%, 1,201~1,800千원은 32.5%, 1,801~3,000千원은 24.6%, 3,001~6,000千원은 19.5%, 6,001~12,000千원은 36.2%, 그리고 12,001千원 이상은 23.5%이었다.

이는 소득수준의 상승이 반드시 일률적으로 저축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득계층에서는 오히려 소비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낮은 소득계층에서는 불가능하던 형태의 소비가 보다 높은 소득계층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 같은 斷層現象은 우리의 표본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斷定的으로 받아 들일 수는 없고 앞으로 보다 본격적인 검토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같은 斷層現象이 사실이라면, 높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저축율이 낮은 계층에 대하여는 集中的으로 消費節約運動을 펴야 할 것이다.

相對所得과 貯蓄率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연간소득 3,001千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가계의 소비행위에 展示效果(demonstration effect)가 작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이같은 展示效果의 작용을 막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資産 및 負債의 규모와 저축율간에는 自家를 소유하지 않은 가계의 저축율이 自家를 소유한 가계의 그것보다 높다는 사실 이외에는 다른 규칙적인 관계를 찾아 보기 힘들었다. 보다 풍부한 자료에 의하여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3) 家口주의 特性과 저축율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家口주의 年齡은 平生所得假說이 말해주는대로의 영향을 저축율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학력은 低·中所得層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저축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고소득층에서는 오히려 학력이 높을수록 저축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中·高所得層에서는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서도 저축율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4) 가족의 구성은 가계의 저축율에 그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지만, 가족수가 많더라도 그것이 저축율을 낮추지 않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는 보다 풍부한 자료에 의하여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5) 生活方式이나 消費慣習은 가계의 저축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每月의 豫算을 세우느냐, 안느냐는 저축율 결정에 그리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가계계획을 세우느냐, 아니면냐에 따라 저축율은 뚜렷이 달라지고 있다. 가계저축율의 제고를 위하여는 每月의 豫算보다 年間家計計劃의 작성을 권장하여야 하겠다.

둘째로 조사가구의 26.1%만이 소득의 處分에 있어서 저축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며, 이들의 저축율은 소비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가계의 그것보다 뚜렷이 높다. 소득처분에 있어서 저축의 우선을 강조하는 것이 저축증강운동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조사가구의 47.7%가 저축목표액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저축율이 저축목표액을 설정하지 않는 가계들의 저축율보다 뚜렷이 높다. 저축목표액의 설정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넷째로 조사가구의 48.8%가 저축을 매일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들의 저축율이 여유있을 때 수시로 저축하는 가계의 저축율보다 더 높다.

(6) 貯蓄의 概念 또한 저축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衣服購入, 自動車購入, 其他 消費者耐久財購入, 教育費支出 등을 저축으로 誤認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들의 저축율은 이를 소비라고 보는 가계들의 저축율보다 낮다. 저축의 개념을 명백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7) 끝으로 貯蓄에 관련된 金融制度의 認知與否는 연간소득 1,200千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저축율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이상의 中·高所得層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은 금융저축(은행예금)을 주요 저축수단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나 中·高所得層은 私金融 및 實物貯蓄 등 보다 有利한 저축수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이들 中·高소득층으로 하여금 은행예금을 그들의 주요 저축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금융저축증대의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을 신뢰하는 가구가 조사가구의 53.4%에 지나지 않는데, 조사의 관례로 보아 이것도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신뢰하는 가계의 저축율이 그밖의 가계의 저축율보다 더 높으므로,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대한 가계의 신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附 表>

<表 II·1> 家計總所得階層別 家口數

	480 千원이하	481~840 千 원	841~ 1,200 千 원	1,201~ 1,800 千 원	1,801~ 3,000 千 원	3,001~ 6,000 千 원	6,001~ 1,2000 千 원	12,001 千원이상	소 계	미 상	총 계
가 회 동	1	0	1	1	3	4	5	3	18	8	26
상 도 동	0	4	5	5	6	7	2	0	29	1	30
신 립 동	2	3	2	6	5	6	0	0	24	1	25
시 흥 동	4	9	7	6	2	1	0	0	29	1	30
전 지 역	7	16	15	18	16	18	7	3	100	11	111

<表 II·2> 實物資產階層別 家口數

	100 千원이하	101~500 千 원	501~ 1,000 千 원	1,001~ 2,000 千 원	2,001~ 5,000 千 원	5,001~ 10,000 千 원	10,001 千원이상	소 계	미 상	총 계
가 회 동	0	0	0	0	0	3	21	24	2	26
상 도 동	0	0	1	3	5	9	8	26	4	30
신 립 동	0	0	2	2	1	11	8	24	1	25
시 흥 동	0	6	5	5	7	3	0	26	4	30
전 지 역	0	6	8	10	13	26	37	100	11	111

<表 II·3> 金融資產階層別 家口數

	100 千원이하	101~500 千 원	501~ 1,000 千 원	1,001~ 2,000 千 원	2,001~ 5,000 千 원	5,001~ 10,000 千 원	10,001 千원이상	소 계	미 상	총 계
가 회 동	0	1	1	2	4	6	7	21	5	26
상 도 동	0	9	2	4	2	2	1	20	10	30
신 립 동	2	9	3	3	2	0	1	20	5	25
시 흥 동	2	7	3	1	0	0	0	13	17	30
전 지 역	4	26	9	10	8	8	9	74	37	111

<表 II·4> 負債金額階層別 家口數

	50 千원이하	51~100 千 원	101~500 千 원	501~ 1,000 千 원	1,001~ 2,000 千 원	2,001~ 5,000 千 원	5,001 千원이상	소 계	미 상	총 계
가 회 동	0	0	1	0	0	2	0	3	23	26
상 도 동	0	0	3	1	3	1	0	8	22	30
신 립 동	0	2	5	2	4	3	1	17	8	25
시 흥 동	4	1	6	3	0	0	0	14	16	30
전 지 역	4	3	15	6	7	6	1	42	69	111

〈表 II·5〉 家族數階層別 家口數

			2인 이하	3~5인	6~10인	11인이상	소 계	미 상	총 계
가	회	동	1	15	10	0	26	0	26
상	도	동	3	14	13	0	30	0	30
신	림	동	1	15	8	0	24	1	25
시	흥	동	3	20	7	0	29	1	30
전	지	역	8 (12.5)	64 (58.2)	38 (34.6)	0 (0)	110 (100.0)	1	111

〈表 II·6〉 家口主年齡別 家口數

			30歲이하	31~40歲	41~50歲	51~60歲	61歲이상	총 계
가	회	동	0	2	13	8	3	26
상	도	동	0	9	14	7	0	30
신	림	동	1	8	14	7	0	25
시	흥	동	4	18	7	0	1	30
전	지	역	5 (4.5)	37 (33.3)	44 (39.6)	20 (18.0)	5 (4.5)	111 (100.0)

〈表 II·7〉 家口主學歷別 家口數

			무 학	국 졸	중 졸	고 졸	대 졸	소 계	미 상	총 계
가	회	동	0	1	2	5	18	26	0	26
상	도	동	0	5	5	12	8	30	0	30
신	림	동	0	1	7	10	7	25	0	25
시	흥	동	0	7	12	7	2	29	1	30
전	지	역	0 (0)	14 (12.7)	26 (23.6)	34 (30.9)	35 (31.8)	110 (100.0)	1	111

〈表 II·8〉 家口主職業別 家口數

			전문, 기술직종사자	행정 및 관련 종사자	사무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서비스 종사자	농·축·수업자	생산 및 운반업자	서비스업자	관공무원	소 계	미 상	총 계
가	회	동	5	10	0	7	1	2	0	0	25	1	26
상	도	동	3	1	0	16	3	0	7	7	30	0	30
신	림	동	3	0	1	14	3	1	2	2	24	1	25
시	흥	동	1	0	0	20	7	0	2	2	30	0	30
전	지	역	12 (11.0)	11 (10.1)	1 (0.9)	57 (52.3)	14 (12.8)	3 (2.8)	11 (10.1)	11 (10.1)	109 (100.0)	2	111

<表 III-1> 貯蓄率階層別 家口數

	0%	0.1~0.5%	0.6~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 이상	소 계	미 상	총 계
가 회 동	0	0	5	5	6	3	1	3	23	3	26
상 도 동	0	1	8	3	3	5	3	5	28	2	30
신 립 동	0	2	4	3	3	5	1	3	21	4	25
시 흥 동	0	0	6	2	3	3	2	0	16	14	30
전 지 역	0	3	23	13	15	16	7	11	88	23	111
	(0)	(3.4)	(26.1)	(14.8)	(17.1)	(18.2)	(7.9)	(12.5)	(100.0)		

<表 III-2> 貯蓄하지 않는 理由

	① 저축할 여유 가 없다	② 빛이 있기 때문에	③ 저축보다는 매일 의 생활을 줄여 야하기 때문에	④ 돈 값이 떨어 지기 때문에	⑤ 기 타	총 계
가 회 동	2	1	0	1	0	4
상 도 동	9	3	0	0	0	12
신 립 동	9	3	0	0	0	12
시 흥 동	16	0	0	0	4	20
전 지 역	36	7	0	1	4	48
	(75.0)	(14.6)	(0)	(2.1)	(8.3)	(100.0)

<表 III-3> 貯蓄의 目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소 계	미 상	총 계
가 회 동	21	15	2	11	13	1	3	1	5	72	6	78
상 도 동	21	20	3	16	9	0	0	2	8	79	11	90
신 립 동	18	14	2	16	9	3	1	3	7	73	2	75
시 흥 동	20	26	2	22	3	4	0	2	10	89	1	90
전 지 역	80	75	9	65	34	8	4	8	30	313	20	333
	(22.2)	(20.8)	(3.6)	(18.0)	(9.4)	(2.2)	(1.1)	(2.2)	(8.3)	(100.0)		

- 註: ① 질병이나 갑자기 필요한 자금을 대비하기 위하여
 ② 자녀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③ 관혼상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④ 앞으로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⑤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⑥ 목돈이 드는 생활용품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⑦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⑧ 차입금상환을 위하여
 ⑨ 부동산구입 및 가옥신축을 위하여

<表 III-4> 貯蓄의 方式

	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한다	② 매달 일정한 액수를 저축한다	③ 여유가 있을 때 수시로 저축한다	④ 기 타	소 계	미 상	총 계
가 회 동	8	6	9	1	28	2	26
상 도 동	9	6	7	1	23	7	30
신 립 동	4	4	9	0	17	8	25
시 흥 동	4	3	3	0	10	20	30
전 지 역	25	19	28	2	74	37	111
	(33.8)	(25.7)	(37.8)	(2.7)	(100.0)		

<表 III·5> 더貯蓄하지 않는 理由

			①	②	③	④	⑤	총 계
가	회	동	11	4	5	2	1	23
상	도	동	23	0	0	0	1	24
신	림	동	1	0	1	0	3	5
시	흥	동	15	1	0	0	2	18
전	지	역	50	5	6	2	7	70
			(71.4)	(7.1)	(8.6)	(2.9)	(10.0)	(100.0)

- 註: ① 소득이 낮아 (더 이상 소비지출을 줄일 수 없으므로)
 ② 더 이상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③ 물가상승으로 저축된 금액의 가치가 없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④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현재의 소비가 더 중요하므로
 ⑤ 기 타

<表 III·6> 消費 및 類似支出을 貯蓄이라고 보는 家口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피복구입	주택구입	주택수리	교육비 지출	자동차 입	텔레비전 안테나 내구	비고등 장비 구입	토지구입	부채상환	의상 값 감	금속 구 입
가 회 동	5	23	14	13	7	10	25	20	15	22	
상 도 동	1	27	13	23	6	9	27	21	9	18	
신 림 동	3	24	17	18	2	11	25	15	8	28	
시 흥 동	4	29	22	26	9	9	28	23	14	21	
전지역 ⁽¹⁾	13	103	66	80	24	39	105	79	46	89	
	(11.7)	(92.8)	(59.5)	(72.1)	(21.6)	(35.1)	(95.6)	(71.2)	(41.4)	(80.2)	

(1) () 내의 숫자는 전체 111가구 중에서 각 항목을 저축이라고 보는 家口數의 百分比임.

<表 III·7> 子女에 對한 貯蓄心教育與否

			저축심을 길러준다	그렇지 않다	총 계
가	회	동	23	3	26
상	도	동	25	5	30
신	림	동	19	3	22
시	흥	동	24	6	30
전	지	역	91	17	108
			(84.3)	(15.7)	(100.0)

〈表 IV·1〉 家計總所得階層別 家口數 및 貯蓄率

지역	가계소득	가계소득										전가구 (A)	미상	전가구 (B)
		480 千 원 이 하	481 ~ 840 千 원	841 ~ 1,200 千 원	1,201 ~ 1,800 千 원	1,801 ~ 3,000 千 원	3,001 ~ 6,000 千 원	6,001 ~ 12,000 千 원	12,001 千 원 이 상	전가구				
가회동	가구수 저축율(%)	1 34.6	0 0	1 14.1	1 54.0	3 12.0	7 15.1	6 33.6	4 23.5	23 23.6	3 0	29 20.9		
상도동	가구수 저축율(%)	0 0	3 44.1	5 27.7	5 30.0	5 23.7	8 19.2	2 44.2	0 0	28 27.9	2 0	30 26.0		
신림동	가구수 저축율(%)	0 0	3 14.4	2 31.2	5 42.1	5 27.9	6 23.0	0 0	0 0	21 28.3	4 0	25 23.8		
시흥동	가구수 저축율(%)	0 0	2 17.1	6 15.9	6 23.1	1 50.0	1 30.4	0 0	0 0	16 21.8	14 0	30 11.6		
전지역	가구수 저축율(%)	1 34.6	8 26.2	14 22.1	17 32.5	14 24.6	22 19.5	8 36.2	4 23.5	88 25.7	23 0	111 20.4		

註: (A)는 未詳인 家口를 제외한 경우의 평균저축율
 (B)는 未詳인 家口의 저축율을 0으로 가정된 경우의 평균저축율

〈表 IV·2〉 家計總資産階層別 貯蓄率

지역	가계총자산	가계소득 1,200千원 이하				가계소득 1,200~3,000千원			
		5,000 千 원 이 하	5,001~ 20,000 千 원	20,001 千 원 이 상	미 상	5,000 千 원 이 하	5,001~ 20,000 千 원	20,001 千 원 이 상	미 상
가회동	가구수 저축율(%)	0 —	2 24.3	0 —	0 —	0 —	0 —	4 22.5	0 —
상도동	가구수 저축율(%)	5 27.5	2 58.3	0 —	1 16.7	4 15.3	5 34.4	1 35.8	0 —
신림동	가구수 저축율(%)	2 21.5	3 20.9	0 —	0 —	1 15.6	7 34.1	2 47.8	0 —
시흥동	가구수 저축율(%)	8 16.2	0 —	0 —	0 —	5 20.1	2 44.2	0 —	0 —
전지역	가구수 저축율(%)	15 20.6	7 32.6	0 —	1 16.7	10 17.7	14 35.6	7 31.6	0 —

지역	가계총자산	가계소득 3,001千원 이상				전 가 구			
		5,000 千 원 이 하	5,001~ 20,000 千 원	20,001 千 원 이 상	미 상	5,000 千 원 이 상	5,001~ 20,000 千 원	20,001 千 원 이 상	미 상
가회동	가구수 저축율(%)	0 —	2 17.7	19 25.8	1 24.4	0 —	4 16.0	18 25.1	1 24.4
상도동	가구수 저축율(%)	1 10.8	6 15.9	3 45.3	0 —	10 20.9	12 29.5	3 42.9	1 16.7
신림동	가구수 저축율(%)	1 23.5	3 23.3	2 22.5	0 —	3 27.4	14 26.5	3 35.1	0 —
시흥동	가구수 저축율(%)	1 30.4	0 —	0 —	0 —	14 18.6	2 44.2	0 —	0 —
전지역	가구수 저축율(%)	3 21.6	11 16.4	19 28.5	1 24.4	27 20.4	33 27.5	26 29.4	2 20.5

<表 IV·3> 家計總負債階層別 貯蓄率

가계소득 가계총부채		1,200千원 이하				1,200~3,000千원			
		5,000千원이하	5,001~20,000千원	20,001千원이상	미 상	5,000千원이상	5,001~20,000千원	20,001千원이상	미 상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	—	1 34.6	1 14.1	—	1 4.3	1 9.0	2 38.3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	2 37.8	—	6 30.5	—	1 2.3	2 24.2	7 31.1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	2 21.5	2 25.1	1 12.0	—	4 37.7	4 37.3	2 24.9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1 3.6	2 6.4	—	5 22.6	—	1 38.5	2 30.0	4 22.6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 3.6	6 21.9	3 28.4	13 25.7	—	7 27.9	9 29.7	15 28.9

가계소득 가계총부채		3,001千원 이상				전 가 구			
		5,000千원이하	5,001~20,000千원	20,001千원이상	미 상	5,000千원이하	5,001~20,000千원	20,001千원이상	미 상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	—	—	17 23.6	—	1 4.3	2 21.9	20 24.6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	—	3 12.1	7 29.4	—	3 25.9	5 16.9	20 30.9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	1 23.5	2 9.8	3 31.7	—	7 31.0	8 27.4	6 26.2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1 30.4	—	—	—	2 17.0	3 17.1	2 30.0	8 22.6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 30.4	1 23.5	5 11.2	27 26.0	2 17.0	14 25.0	17 23.9	55 26.7

<表 IV·4> 이웃 所得과의 比較와 貯蓄率

가계소득 이웃소득과의 비교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더 높다고 생각한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더 낮다고 생각한다	미 상	더 높다고 생각한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더 낮다고 생각한다	미 상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	14.1	1 34.6	—	—	1 9.2	3 26.9	—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	4 44.3	2 37.1	2 9.7	—	5 25.9	5 27.8	—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	2 36.0	3 11.2	—	—	7 30.9	3 44.4	—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1 3.6	6 16.6	1 26.0	—	3 27.3	2 23.4	2 30.0	—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 3.6	13 27.9	7 24.0	2 9.7	3 27.3	15 26.8	13 31.8	—

이웃소득과의 비교		가계소득				전 인 구				
		3,001千원 이상				미 상	전 인 구			
		더 높다고 생각한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더 낮다고 생각한다	미 상		더 높다고 생각한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더 낮다고 생각한다	미 상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4	11	1	1	4	13	5	1	
가 회 동	저축율(%)	24.2	25.1	3.5	24.4	24.2	23.1	23.8	24.4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3	6	1	—	3	15	8	2	
신 립 동	저축율(%)	30.6	19.6	33.2	—	30.6	28.3	30.8	9.7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1	5	—	—	1	14	6	—	
전 지 역	저축율(%)	35.4	20.6	—	—	35.4	27.9	27.8	—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	1	—	—	4	9	3	—	
상 도 동	저축율(%)	—	30.4	—	—	21.4	19.7	28.7	—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8	23	2	1	12	51	22	3	
시 흥 동	저축율(%)	27.9	22.9	18.3	24.4	25.8	25.3	28.1	14.6	

<表 IV·5> 自家所有與否와 貯蓄率

자가소유여부		가계소득				1,201~3,000千원			
		1,200千원 이하				자 가	전 월	세 계	무 임 사 택 기
		자 가	전 월	세 계	무 임 사 택 기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3	—	—	—	3	1	—	
상 도 동	저축율(%)	24.3	—	—	—	28.6	4.3	—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2	6	—	—	6	4	—	
시 흥 동	저축율(%)	24.3	37.0	—	—	17.7	40.6	—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	4	—	—	5	5	—	
가 회 동	저축율(%)	0.2	26.3	—	—	30.9	38.9	—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5	3	—	—	4	3	—	
신 립 동	저축율(%)	16.0	16.4	—	—	32.9	18.9	—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10	13	—	—	18	13	—	
전 지 역	저축율(%)	17.8	28.9	—	—	26.6	32.2	—	

자가소유여부		가계소득				전 가 구				총 평 균
		3,001千원 이상				자 가	전 월	세 계	무 임 사 택 기	
		자 가	전 월	세 계	무 임 사 택 기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16	1	—	—	20	3	—	23	
상 도 동	저축율(%)	24.8	3.8	—	—	26.6	4.0	—	23.5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9	1	—	—	17	11	—	28	
시 흥 동	저축율(%)	26.6	3.0	—	—	23.2	35.2	—	27.9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4	2	—	—	10	11	—	21	
가 회 동	저축율(%)	28.7	11.8	—	—	26.9	29.4	—	28.1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	1	—	—	9	7	—	16	
신 립 동	저축율(%)	—	30.4	—	—	23.6	19.5	—	21.8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29	5	—	—	56	32	—	88	
전 지 역	저축율(%)	25.9	12.2	—	—	25.1	26.7	—	25.7	

〈表 IV·6〉 家口主年齡別 貯蓄率

가계소득 가구주연령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3,001千원 이상			전 가 구		
		40세 이하	41~60세	61세 이상	40세 이하	41~60세	61세 이상	40세 이하	41~60세	61세 이상	40세 이하	41~60세	61세 이상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0 —	2 24.3	0 —	1 54.0	2 13.5	1 9.2	1 13.6	14 22.5	2 36.2	2 33.8	18 21.7	3 27.2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5 30.5	3 39.3	0 —	0 —	10 26.9	0 —	4 16.5	6 29.4	0 —	8 24.3	19 29.6	0 —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3 31.1	1 12.0	1 0.2	2 39.1	8 33.9	0 —	3 23.1	3 22.9	0 —	8 30.1	12 29.4	1 0.2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7 14.1	1 30.6	0 —	6 23.1	1 50.0	0 —	0 —	1 30.4	0 —	13 18.3	3 36.9	0 —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5 22.9	7 29.9	1 0.2	9 30.1	21 29.4	1 9.2	8 18.6	24 24.6	2 36.2	32 23.9	52 27.3	4 20.5

〈表 IV·7〉 家口主學歷別 貯蓄率

가계소득 가구주학력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무학, 국졸 이하	국졸	중고	졸졸	대 졸	미 상	무학, 국졸 이하	국졸	중고	졸졸	대 졸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1 14.1	0 —	1 24.6	0 —	0 —	0 —	0 —	1 4.3	3 28.6	6 72.2	1 28.6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2 10.7	5 35.9	1 69.4	0 —	0 —	3 2.0	6 31.6	1 72.2	1 48.3	2 48.3	2 48.3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0 —	5 21.1	0 —	0 —	0 —	1 7.3	7 35.1	2 48.3	1 50.0	5 17.7	1 50.0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1 7.2	6 17.6	0 —	1 16.7	1 50.0	5 17.7	1 50.0	1 50.0	5 17.7	1 50.0	1 50.0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4 10.6	16 24.4	2 52.0	1 16.7	5 12.8	19 27.8	7 43.5	7 43.5	7 43.5	7 43.5	7 43.5

가계소득 가구주학력		3,001千원 이상			전 가 구			
		무학, 국졸 이하	국졸	중고	졸졸	대 졸	미 상	미 상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0 —	5 25.2	12 22.9	1 14.5	6 21.7	16 24.7	0 —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0 —	5 27.1	5 21.4	5 5.6	16 31.6	7 35.5	0 —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0 —	2 11.8	4 28.7	1 7.3	14 26.8	6 35.0	0 —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1 30.4	0 —	0 —	3 29.0	11 17.7	1 50.0	1 16.7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 30.4	12 23.8	21 23.6	10 13.7	47 25.6	30 30.2	1 16.7

〈表 IV·8〉 家口主職業別 平均貯蓄率

가계소득 가구주직업		1,200千원 이하								
		전문, 및 기술직	기관	행정및 관리직	사무및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어 수렵 업	생산, 운 전사, 단 순노무자	미 상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0	0	0	0	1 34.6	1 14.1	0	0	0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1 0.41	0	0	0	2 4.30	2 65.4	0	3 17.9	0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1 21.3	0	0	0	3 28.0	0	0	0	1 0.23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0	0	0	0	5 20.4	1 16.7	0	2 5.4	0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2 10.9	0	0	0	11 27.9	4 40.4	0	6 10.7	0
가계소득 가구주직업		1,201~3,000千원								
		전문, 및 기술직	기관	행정및 관리직	사무및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어 수렵 업	생산, 운 전사, 단 순노무자	미 상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2 15.9	0	0	0	2 29.2	0	0	0	0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0	0	0	0	6 28.8	1 1.8	0	3 31.4	0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1 46.9	0	0	0	7 35.8	1 34.2	0	1 18.0	0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0	0	0	0	6 25.0	1 38.5	0	0	0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3 26.3	0	0	0	21 30.1	3 24.6	0	4 28.0	0
가계소득 가구주직업		3,001千원 이상								
		전문, 및 기술직	기관	행정및 관리직	사무및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어 수렵 업	생산, 운 전사, 단 순노무자	미 상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3 15.4	8 23.8	0	0	4 27.0	0	1 31.6	0	1 24.4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3 29.9	0	7 21.8	0	0	0	0	0	0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1 35.4	0	1 10.0	3 23.1	1 23.5	0	0	0	0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0	0	0	0	1 30.4	0	0	0	0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6 22.1	9 25.5	1 10.0	14 23.6	2 26.9	1 31.6	0	1 24.4	0

가계소득 가구주직업		전 가 구								
		전문, 기술직	기관	행정 및 관리직	사무 및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어업, 수렵	생산, 운전자, 노무자	미 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5 15.7	8 23.8	0	7 28.7	1 14.1	1 31.6	0	0	24.4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3 16.9	1 29.3	0	15 27.4	3 44.2	0	6 24.6	0	—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3 34.5	0	1 10.0	13 31.9	2 28.8	0	1 18.0	1 0.23	—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0	0	0	11 22.9	3 28.5	0	2 5.4	0	—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1 21.3	9 25.5	1 10.0	1 27.6	46 32.3	91 31.6	9 19.6	2 12.3	—

<表 IV·9> 家族數階層別 貯蓄率

가계소득 가족수		1,200千원 이하			1,200~3,000千원			3,000千원 이상			전 가 구		
		2인 이하	3~5인	6인 이상	2인 이하	3~5인	6인 이상	2인 이하	3~5인	6인 이상	2인 이하	3~5인	6인 이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1 14.1	1 34.6	—	—	4 22.5	—	—	9 27.0	8 19.7	1 14.1	14 26.3	8 19.7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1 0.4	6 37.4	—	1 15.4	4 39.1	6 23.8	1 47.5	3 12.1	6 26.4	3 21.1	13 32.1	12 25.1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1 0.2	4 26.3	—	—	5 32.2	5 37.8	—	5 15.7	1 59.5	1 0.2	14 24.6	6 41.4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1 5.5	6 15.5	1 30.6	1 27.8	5 22.2	1 50.0	—	1 30.4	—	2 16.7	12 19.5	2 40.3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4 5.1	17 26.9	1 30.6	2 21.6	18 28.8	12 31.8	1 47.5	18 21.6	15 25.0	7 15.8	53 25.7	28 28.2

<表 IV·10> 有所得家族比率別 貯蓄率

가계소득 유소득가족비율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20%이하	20.1~50.0%	50.1%이상	미 상	20%이하	20.1~50.0%	50.1%이상	미 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0	2 24.3	0	0	2 28.3	1 8.2	1 4.3	0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4 34.5	4 23.2	0	0	2 29.4	6 32.1	2 8.6	0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1 12.0	4 23.4	0	0	3 27.8	6 41.8	0	1 15.6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5 19.8	3 10.1	0	0	3 21.4	4 31.1	0	0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0 24.9	13 23.5	0	0	10 28.3	17 23.9	3 7.2	1 15.6

유소득가족비율		가계소득				전 가 구			
		3,001千원 이상							
지역		20%이하	20.1~50.0%	50.1%이상	미 상	20%이하	20.1~50.0%	50.1%이상	미 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7 17.7	7 31.8	0	3 18.3	9 22.3	10 28.0	1 4.3	3 18.3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5 21.6	5 26.8	0	0	11 27.7	15 30.6	2 8.6	0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1 9.7	3 39.5	2 5.1	0	5 21.0	13 35.6	2 5.1	1 15.6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0	* 1 30.4	0	0	8 20.4	8 23.2	0	0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3 18.6	16 31.6	2 5.1	3 18.3	33 23.4	46 30.2	5 6.3	4 17.6

<表 IV·11> 在學家族比率別 貯蓄率

재학가족비율		가계소득				1,201~3,000千원			
		1,200千원 이하							
지역		20.0%이하	20.1~50.0%	50.1%이상	미 상	20.0%이하	20.1~50.0%	50.1%이상	미 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1 14.1	1 34.5	0	0	1 4.3	1 54.0	2 15.9	0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5 30.5	3 39.3	0	0	3 14.7	5 39.8	2 12.7	0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3 14.4	2 31.2	0	0	4 36.3	2 41.1	3 35.6	1 15.6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4 13.1	2 10.1	2 28.3	0	6 30.8	0	1 4.2	0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3 20.2	8 29.4	2 28.3	0	14 27.0	8 41.9	8 21.0	1 15.6

재학가족비율		가계소득				전 가 구			
		3,001千원 이상							
지역		20.0%이하	20.1~50.0%	50.1%이상	미 상	20.1%이하	20.1~50.0%	50.1%이상	미 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0	6 21.2	5 22.0	6 27.3	2 9.0	8 26.9	7 20.3	6 27.0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2 16.6	2 21.8	5 23.6	1 47.5	10 22.9	10 36.1	7 20.5	1 47.5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1 0.2	5 27.6	0	0	8 23.6	9 31.0	3 35.6	1 15.6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0	1 30.4	0	0	10 23.7	3 16.9	3 20.3	0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3 11.1	14 24.2	10 22.8	7 30.2	30 22.5	30 30.3	20 22.6	8 28.4

<表 IV·12> 家計計劃期間別 貯蓄率

지역		가계소득 계획기간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계획을 세우지 않음	1년	2~4년	미상	계획을 세우지 않음	1년	2~4년	미상
가회동	가구수 저축율(%)	34.6	0	14.1	0	13.5	0	31.6	0		
상도동	가구수 저축율(%)	36.8	69.4	27.7	16.7	9.3	0	39.8	1.8		
신림동	가구수 저축율(%)	13.8	0	50.3	0	35.9	0	34.0	34.2		
시흥동	가구수 저축율(%)	21.7	0	10.6	0	22.9	38.5	8.3	50.0		
전지역	가구수 저축율(%)	22.8	69.4	21.8	16.7	23.3	38.5	34.3	28.7		

지역		가계소득 계획기간		3,001千원 이상			전 가 구				
				계획을 세우지 않음	1년	2~4년	미상	계획을 세우지 않음	1년	2~4년	미상
가회동	가구수 저축율(%)	32.4	13.6	16.1	0	29.1	13.6	18.7	0		
상도동	가구수 저축율(%)	28.3	0	19.7	39.3	23.3	69.4	29.2	19.3		
신림동	가구수 저축율(%)	27.7	35.4	9.8	0	26.5	35.4	29.4	34.2		
시흥동	가구수 저축율(%)	0	0	30.4	0	22.4	38.5	13.5	50.0		
전지역	가구수 저축율(%)	30.5	24.5	17.5	39.3	25.7	39.2	24.0	28.4		

<表 IV·13> 家計豫算作成與否別 貯蓄率

지역		예산작성여부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3,001千원 이상		전 가 구	
				작성한다	작성 않는다	작성한다	작성 않는다	작성한다	작성 않는다	작성한다	작성 않는다
가회동	가구수 저축율(%)	24.3	0	0	22.5	14	18.9	3	45.3	16	32.3
상도동	가구수 저축율(%)	32.8	2	7	25.4	8	25.8	2	18.1	20	26.6
신림동	가구수 저축율(%)	0	5	3	33.6	5	25.7	1	9.7	8	26.9
시흥동	가구수 저축율(%)	21.3	5	6	50.0	0	1	1	30.4	9	20.8
전지역	가구수 저축율(%)	28.1	12	16	30.1	27	22.2	7	30.3	54	26.7

<表 IV·14> 所得處分方式別 貯蓄率

가계소득 소득처분방식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3,001千원 이상			전 가 구		
		소비지 출우선	저축 우선	미상	소비지 출우선	저축 우선	미상	소비지 출우선	저축 우선	미상	소비지 출우선	저축 우선	미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1 34.6	1 14.1	—	2 15.5	2 38.3	—	13 20.9	3 28.1	1 45.0	16 19.9	6 29.2	1 45.0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4 33.6	1 45.8	3 30.1	5 27.2	4 32.7	1 1.8	6 29.9	2 27.5	2 3.6	15 30.0	7 33.1	6 16.6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2 21.5	1 50.3	2 6.1	4 32.6	2 49.2	4 30.3	3 34.9	2 11.8	1 9.7	9 30.9	5 34.5	7 20.4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1 26.0	2 12.3	5 15.7	3 23.5	3 22.8	1 50.0	—	—	1 30.4	4 24.1	5 18.6	7 22.7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8 29.8	5 26.9	10 18.1	14 25.0	11 34.0	6 28.8	22 25.3	7 23.3	5 18.5	44 26.0	23 29.2	21 21.3

<表 IV·15> 貯蓄目標額有無別 貯蓄率

가계소득 저축목표액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3,001千원 이상			전 가 구		
		있다	없다	미상	있다	없다	미상	있다	없다	미상	있다	없다	미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1 14.1	1 34.6	0	3 22.5	0	1 22.6	6 18.8	11 26.2	0	10 19.4	12 26.9	1 22.6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4 44.3	2 36.1	2 10.7	6 31.6	2 37.4	2 2.0	6 24.6	4 23.6	0	16 32.2	8 30.2	4 6.4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1 21.7	3 27.9	1 10.2	4 44.0	6 28.9	0	4 26.2	2 16.7	0	9 33.6	11 26.8	1 2.2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2 16.6	4 15.5	2 17.1	4 31.1	3 21.4	0	1 30.4	0	0	7 26.9	7 18.0	2 17.1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8 30.8	10 25.2	5 11.1	17 32.8	11 28.4	3 8.9	17 23.3	17 24.5	0	42 28.6	38 25.8	8 10.4

<表 IV·16> 貯蓄方式別 貯蓄率

가계소득 저축방식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매달 정액 저축	일 회 저축	매달 저축 수 미정	저축 수 미정	유 있 을 수 미	상	매달 정액 저축	일 회 저축	매달 저축 수 미정	저축 수 미정	유 있 을 수 미	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0	0	2	24.3	0	1	1	0	2	2	1	22.6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1	1	3	8.0	3	3	2	2	2	2	3	25.4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0	1	0	13.8	4	2	1	5	1	5	2	11.5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1	2	1	14.5	4	2	1	2	2	2	2	7.1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2	4	6	12.5	11	8	4	11	4	11	8	16.9

저축방식		가계소득				전 가 구					
		3,001천원 이상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매달 정액 저축	일 하 나 저축 수	저축 액 미 정	유 있 을 수 지	미 상	매달 정액 저축	일 하 나 저축 수	저축 액 미 정	유 있 을 수 지	미 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6 20.2	6 20.7	5 31.1	0	7 25.1	6 20.7	9 24.2	1 22.6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5 28.9	3 27.5	2 7.5	0	9 32.2	6 38.9	7 22.3	6 16.7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2 9.8	2 47.5	2 11.8	0	4 32.9	4 52.4	7 24.9	6 13.0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1 30.4	0	0	0	4 23.7	3 27.2	3 33.3	6 12.0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4 22.6	11 27.4	9 21.6	0	24 28.9	19 34.1	26 24.9	19 14.4		

<表 IV·17> 貯蓄으로 顯認하는 消費項目의 數와 貯蓄率

오인항목수		가계소득				1,201~3,000천원			
		1,200천원 이하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	2	3	4	1	2	3	4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0 —	0 —	0 —	0 —	3 22.5	0 —	1 22.6	0 —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4 27.9	1 0.4	1 69.4	0 —	3 34.0	6 25.8	2 23.7	0 —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1 50.3	2 10.9	0 —	0 —	3 35.3	4 33.0	1 12.5	0 —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7 17.9	0 —	0 —	0 —	3 34.7	3 18.9	0 —	0 —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2 18.8	3 7.4	1 69.4	0 —	12 31.6	13 26.4	4 20.6	0 —

오인항목수		가계소득				전 가 구			
		3,001천원 이상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	2	3	4	1	2	3	4
가 회 동	가 구 수 저축율(%)	8 28.8	1 24.4	5 19.1	0	11 27.1	1 24.4	6 19.7	0
상 도 동	가 구 수 저축율(%)	6 26.2	0	0	0	13 28.5	7 22.2	3 38.9	0
신 립 동	가 구 수 저축율(%)	0	3 18.4	2 41.5	0	4 39.1	9 23.2	3 31.8	0
시 흥 동	가 구 수 저축율(%)	0	1 30.4	0	0	10 23.0	4 21.8	0	0
전 지 역	가 구 수 저축율(%)	14 27.8	5 21.9	7 25.5	0	38 27.7	21 22.6	12 27.5	0

<表 IV·18> 貯蓄의 聯想觀念과 貯蓄率

가계소득 저축의 연상관념 지 역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희망, 안 전, 즐겁	여 유	절약, 고 통, 손해	미 상	희망, 안 전, 즐겁	여 유	절약, 고 통, 손해	미 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 축 율 (%)	1 14.1	—	1 34.6	—	2 13.5	2 31.6	—	—		
상 도 동	가 구 수 저 축 율 (%)	4 45.3	—	3 24.0	1 16.7	7 30.9	—	3 17.5	—		
신 립 동	가 구 수 저 축 율 (%)	2 25.3	2 21.5	1 12.0	—	6 46.3	3 18.8	1 15.6	—		
시 흥 동	가 구 수 저 축 율 (%)	7 15.9	1 17.5	—	—	4 31.6	—	2 6.3	1 50.0		
전 지 역	가 구 수 저 축 율 (%)	14 25.6	3 20.2	5 23.8	1 16.7	19 34.1	5 23.9	6 13.4	1 50.0		
가계소득 저축의 연상관념 지 역		3,001千원 이상					전 가 구				
		희망, 안 전, 즐겁	여 유	절약, 고 통, 손해	미 상	희망, 안 전, 즐겁	여 유	절약, 고 통, 손해	미 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 축 율 (%)	8 32.9	4 10.0	4 21.7	1 10.3	11 27.8	6 17.2	5 24.3	1 10.3		
상 도 동	가 구 수 저 축 율 (%)	5 12.7	4 34.8	1 39.3	—	16 28.8	10 26.5	2 27.9	—		
신 립 동	가 구 수 저 축 율 (%)	5 20.6	1 35.4	—	—	13 33.2	6 22.5	2 13.8	—		
시 흥 동	가 구 수 저 축 율 (%)	1 30.4	—	—	—	12 22.4	1 17.5	2 6.3	1 50.0		
전 지 역	가 구 수 저 축 율 (%)	19 34.3	5 15.1	8 28.3	2 24.8	52 28.2	13 19.7	19 22.4	4 29.3		

<表 IV·19> 貯蓄의 第1次目的과 貯蓄率

가계소득 저축의 제1차목적 지 역		1,200千원 이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미 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 축 율 (%)	1 14.1	1 34.6	0	0	0	0	0	0	0	0
상 도 동	가 구 수 저 축 율 (%)	4 29.6	1 60.0	0	1 4.7	0	0	0	1 70.8	0	1 16.7
신 립 동	가 구 수 저 축 율 (%)	0	2 16.7	0	0	1 0.2	0	0	0	2 36.0	0
시 흥 동	가 구 수 저 축 율 (%)	1 3.6	4 14.9	0	3 21.9	0	0	0	0	0	0
전 지 역	가 구 수 저 축 율 (%)	6 22.7	8 23.5	0	4 17.6	1 0.2	0	0	1 70.8	2 36.0	1 16.7

저축의 제1차목적 지역		가계소득 1,201~3,000 千 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미상
가회동	가저구수 축율(%)	1 4.3	2 15.9	0 —	0 —	0 —	0 —	0 —	0 —	1 5.40	0 —
상도동	가저구수 축율(%)	1 2.6	5 35.9	0 —	2 41.2	0 —	0 —	0 —	0 —	0 —	2 2.0
신탐동	가저구수 축율(%)	5 30.8	3 48.8	0 —	1 33.7	0 —	0 —	0 —	0 —	1 15.6	0 —
시흥동	가저구수 축율(%)	1 50.0	2 7.1	0 —	4 31.1	0 —	0 —	0 —	0 —	0 —	0 —
전지역	가저구수 축율(%)	8 26.4	12 30.9	0 —	9 34.4	0 —	0 —	0 —	0 —	2 34.8	2 2.0
저축의 제1차목적 지역		가계소득 3,001 千 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미상
가회동	가저구수 축율(%)	6 24.6	1 10.3	0 —	6 21.5	2 38.8	0 —	0 —	0 —	2 18.3	0 —
상도동	가저구수 축율(%)	4 15.9	2 18.5	0 —	4 35.6	0 —	0 —	0 —	0 —	0 —	0 —
신탐동	가저구수 축율(%)	4 25.7	0 —	0 —	1 0.2	1 35.4	0 —	0 —	0 —	0 —	0 —
시흥동	가저구수 축율(%)	0 —	0 —	0 —	1 30.4	0 —	0 —	0 —	0 —	0 —	0 —
전지역	가저구수 축율(%)	14 22.4	3 15.5	0 —	12 25.2	3 37.6	0 —	0 —	0 —	2 18.3	0 —
저축의 제1차목적 지역		가계소득 전 가 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미상
가회동	가저구수 축율(%)	8 22.7	4 19.2	0 —	6 21.5	2 38.8	0 —	0 —	0 —	3 30.2	0 —
상도동	가저구수 축율(%)	9 20.5	8 34.5	0 —	7 32.8	0 —	0 —	0 —	1 70.8	0 —	3 6.9
신탐동	가저구수 축율(%)	9 28.5	5 35.9	0 —	2 16.9	2 17.8	0 —	0 —	0 —	3 28.2	0 —
시흥동	가저구수 축율(%)	2 26.8	6 12.3	0 —	8 27.6	0 —	0 —	0 —	0 —	0 —	0 —
전지역	가저구수 축율(%)	28 23.6	23 26.4	0 —	23 26.7	4 28.3	0 —	0 —	1 70.8	6 29.7	3 6.9

註: ① 질병이나 갑자기 필요한 자금을 대비하기 위하여 ② 자녀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③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④ 앞으로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⑤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⑥ 목돈이 드는 생활용품 구입하기 위하여 ⑦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⑧ 차입금상환을 위해 ⑨ 부동산구입 및 가옥신축을 위하여

〈表 IV·20〉 預金勤勞와 貯蓄率

가계소득 예금원유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3,001千원 이상			전 가 구		
		받은적 있다	받은적 없다	미 상	받은적 있다	받은적 없다	미 상	받은적 있다	받은적 없다	미 상	받은적 있다	받은적 없다	미 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 축율(%)	2 24.3	0 —	0 —	3 28.6	1 4.3	0 —	14 24.3	3 20.4	0 —	19 24.9	4 16.4	0 —
상 도 동	가 구 수 저 축율(%)	4 29.6	3 45.2	1 16.7	7 34.4	3 9.3	0 —	9 26.6	1 3.0	0 —	20 29.9	7 23.8	1 16.7
신 립 동	가 구 수 저 축율(%)	4 20.9	1 21.8	0 —	7 31.7	3 42.6	0 —	6 23.0	0 —	0 —	12 26.1	4 37.4	0 —
시 흥 동	가 구 수 저 축율(%)	6 16.3	2 15.8	0 —	5 26.9	2 27.1	0 —	1 32.4	0 —	0 —	12 21.9	4 21.4	0 —
전 지 역	가 구 수 저 축율(%)	16 21.8	6 31.5	1 16.7	22 31.0	9 23.8	0 —	30 24.9	4 16.0	0 —	68 26.2	19 24.6	1 16.7

〈表 IV·21〉 銀行과의 距離와 貯蓄率

가계소득 은행과의 거리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3,001千원 이상			전 가 구		
		도보 10분 이내	도보 30분 이내	자 동 차 를 타 야 한 다	도보 10분 이내	도보 30분 이내	자 동 차 를 타 야 한 다	도보 10분 이내	도보 30분 이내	자 동 차 를 타 야 한 다	도보 10분 이내	도보 30분 이내	자 동 차 를 타 야 한 다
가 회 동	가 구 수 저 축율(%)	1 14.1	1 34.6	0 —	4 22.5	0 —	0 —	15 25.2	2 11.5	0 —	20 24.1	3 19.2	0 —
상 도 동	가 구 수 저 축율(%)	7 37.9	1 4.7	0 —	10 26.9	0 —	0 —	10 24.2	0 —	0 —	27 31.1	1 4.7	0 —
신 립 동	가 구 수 저 축율(%)	4 22.9	1 21.7	0 —	7 34.0	2 39.1	1 33.7	4 29.7	2 9.8	0 —	15 29.4	5 23.9	1 33.7
시 흥 동	가 구 수 저 축율(%)	0 —	6 19.8	2 5.4	0 —	5 34.1	2 9.2	0 —	0 —	1 30.4	0 —	11 26.3	5 11.9
전 지 역	가 구 수 저 축율(%)	12 30.3	9 19.9	2 5.4	21 28.4	7 35.5	3 17.3	29 25.5	4 10.6	1 30.4	62 27.4	20 23.5	6 15.5

〈表 IV·22〉 銀行預金金利評價와 貯蓄率

가계소득 은행금리평가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적 정 하 다	너 무 낮 다	너 무 높 다	예 금 금 리 를 모 르 는 다	미 상	적 정 하 다	너 무 낮 다	너 무 높 다	예 금 금 리 를 모 르 는 다	미 상
가 회 동	가 구 수 저 축율(%)	0 —	1 14.1	0 —	0 —	34.6	1 4.3	2 31.6	0 —	1 22.6	0 —
상 도 동	가 구 수 저 축율(%)	2 34.9	3 58.8	0 —	2 9.7	1 4.7	4 29.3	4 29.2	1 33.1	1 1.8	0 —
신 립 동	가 구 수 저 축율(%)	1 50.5	3 11.3	0 —	1 21.3	0 —	1 46.9	7 33.7	0 —	1 33.3	1 33.7
시 흥 동	가 구 수 저 축율(%)	1 3.6	5 20.4	0 —	2 11.9	0 —	1 8.3	4 41.6	0 —	2 7.1	0 —
전 지 역	가 구 수 저 축율(%)	4 30.9	12 27.2	0 —	5 12.9	2 19.6	7 25.2	17 34.2	1 33.1	5 14.4	1 33.7

은행금리평가 지역		가계소득					전 가 구						
		3,001천원 이상											
		적정하다	너무 낮다	너무 높다	예금리 모른다	금리가 높다	미상	적정하다	너무 낮다	너무 높다	예금리 모른다	금리가 높다	미상
가회동	가구수 저축율(%)	2 33.7	19 23.6	0	1 3.3	0	3 23.9	17 23.9	0	2 12.9	1 34.6		
상도동	가구수 저축율(%)	2 6.9	8 28.6	0	0	0	8 25.1	15 34.8	1 33.1	3 7.1	1 4.7		
신림동	가구수 저축율(%)	3 22.8	3 23.3	0	0	0	5 33.2	18 26.1	0	2 27.3	1 33.7		
시흥동	가구수 저축율(%)	0	0	0	1 30.4	0	2 5.9	9 29.8	0	5 13.7	0		
전지역	가구수 저축율(%)	7 21.4	25 25.1	0	2 16.9	0	18 25.0	54 28.5	1 33.1	12 14.2	3 24.3		

<表 IV·23> 私價金利認知與否와 貯蓄率

사채금리인지여부 지역		가계소득			1,200천원 이하			1,201~3,000천원			3,001천원 이상			전 가 구		
		안다	모른다	미상	안다	모른다	미상	안다	모른다	미상	안다	모른다	미상			
가회동	가구수 저축율(%)	2 24.3	0	0	3 22.5	1 22.6	0	10 23.2	7 24.1	0	15 23.0	8 3.9	0			
상도동	가구수 저축율(%)	5 27.5	3 44.4	0	8 30.5	2 12.5	0	9 26.5	1 4.3	0	22 28.1	6 27.1	0			
신림동	가구수 저축율(%)	4 20.9	1 21.7	0	8 37.6	1 15.6	1 33.7	4 25.7	2 17.8	0	16 30.4	4 18.2	1 33.7			
시흥동	가구수 저축율(%)	4 14.3	4 18.0	0	7 26.9	0	0	1 30.4	0	0	12 23.0	4 18.0	0			
전지역	가구수 저축율(%)	15 21.8	8 28.4	0	2 30.8	4 15.8	1 33.7	24 25.1	10 20.9	0	65 26.6	22 22.7	1 33.7			

<表 IV·24> 預金利子所得에 대한 稅制上惠澤의 認知와 貯蓄率

세계상혜택인지여부 지역		가계소득			1,200천원 이하			1,201~3,000천원			3,001천원 이상			전 가 구		
		안다	모른다	미상	안다	모른다	미상	안다	모른다	미상	안다	모른다	미상			
가회동	가구수 저축율(%)	0	2 44.3	0	1 54.0	3 12.0	0	11 22.0	6 26.4	0	12 24.7	11 22.1	0			
상도동	가구수 저축율(%)	4 43.9	4 23.7	0	6 34.4	4 15.5	0	9 26.5	1 4.3	0	19 32.6	9 17.9	0			
신림동	가구수 저축율(%)	1 12.0	4 23.4	0	3 27.8	6 38.8	1 33.7	1 35.4	5 20.6	0	5 26.2	15 28.6	1 33.7			
시흥동	가구수 저축율(%)	2 10.5	6 18.0	0	2 18.1	5 30.5	0	0	1 30.4	0	4 14.3	12 24.3	0			
전지역	가구수 저축율(%)	7 29.8	16 21.6	0	12 31.7	18 26.9	1 33.7	21 24.6	13 22.8	0	40 27.6	47 23.9	1 33.7			

<表 IV·25> 政府의 物價安定政策에 대한 信賴와 貯蓄率

가계소득 신뢰여부		1,200千원 이하			1,201~3,000千원			3,001千원 이상			전 가 구		
		주력할 것이다	주력하 지않을 것이다	모르 겠다	주력할 것이다	주력하 지않을 것이다	모르 겠다	주력할 것이다	주력하 지않을 것이다	모르 겠다	주력할 것이다	주력하 지않을 것이다	모르 겠다
가 회 동	가 구 수 저 축율(%)	2 24.3	0 —	0 —	3 22.5	0 —	1 22.6	6 31.8	5 11.5	6 25.5	11 27.9	5 11.5	7 25.1
상 도 동	가 구 수 저 축율(%)	4 28.3	0 —	4 39.3	7 25.5	0 —	3 29.9	6 27.5	0 —	4 19.3	17 26.9	0 —	11 29.5
신 립 동	가 구 수 저 축율(%)	4 21.1	0 —	1 21.3	5 33.9	1 65.4	4 28.7	3 26.4	0 —	3 19.7	12 27.8	1 65.4	8 24.4
시 흥 동	가 구 수 저 축율(%)	4 7.2	0 —	4 21.1	2 27.1	2 38.9	3 18.9	1 30.4	0 —	0 —	7 18.5	2 38.9	7 20.2
전 지 역	가 구 수 저 축율(%)	14 20.8	0 —	9 29.2	17 27.7	3 38.9	11 25.8	16 29.1	5 11.5	13 22.2	47 26.1	8 25.1	33 25.3

註: 設問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보는가?”

- ① 주력할 것이다 () ② 주력하지 않을 것이다 () ③ 모르겠다 ()